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접일자리/공공업무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산림청/산불방지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 필요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산불 발생시기 연중화, 도시지역 야간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대형화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사업 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발생하는 도시 및 산악지역 산불, 야간산불 등 특수지역 산불대응을 통한 산불재난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 최소화

□ 예산 및 자원 : 일반회계

<표 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 예산 및 자원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집행률)			(%)
□ 산불방지대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468	△2,716	9,279 (99.8)	11,734	26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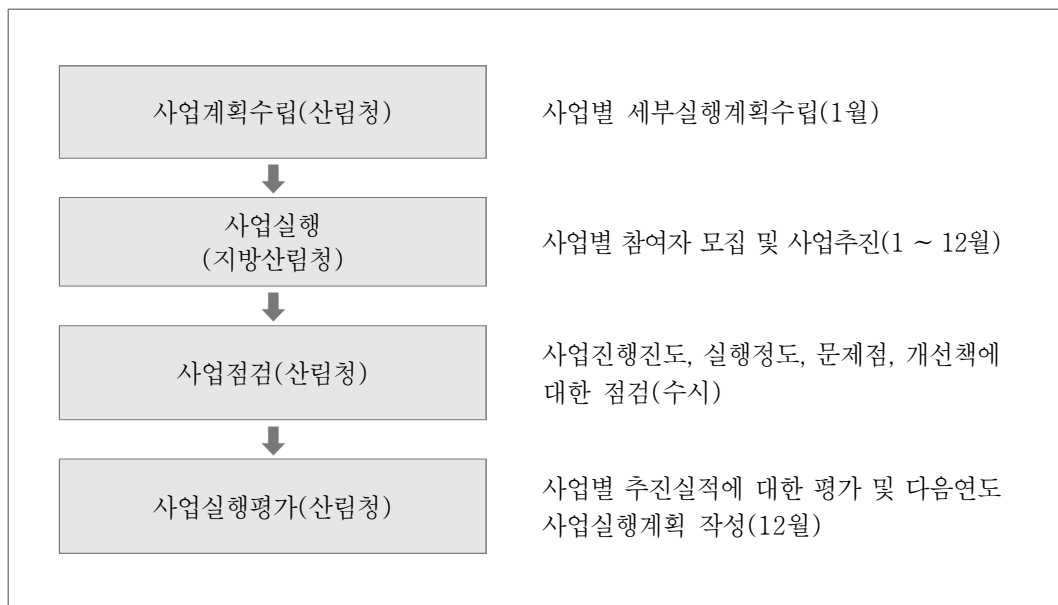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 주요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농·산촌 유휴 인력 및 청·장년 실업자로 협준한 산악지형에서의 활동 및 산불진화가 가능한 자

□ 사업운영 개요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임금) 명절휴가비 증액(40만원→66만원) 지급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전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참여자는 154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0.02%에 해당하며, 동일유형(공공업무지원형) 참여자의 1.1%에 해당
- (성별)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100%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중년층(35~54세) 참여자 비율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층(15~34세)이 26.6%, 장년층(55~64세)이 26.0%, 고령층(65세 이상)이 1.9%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 참여자(개인)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공공업무지원 전체	43,513 (100.0)	15,813 (36.3)	27,700 (63.7)	1,473 (3.4)	18,499 (42.5)	17,676 (40.6)	5,865 (13.5)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154 (100.0)	154 (100.0)	0 (0.0)	41 (26.6)	70 (45.5)	40 (26.0)	3 (1.9)

주: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성과지표

(단위: %)

	반복참여율	취약계층 참여율
직접일자리 전체	3.1	57.3
공공업무지원 전체	6.5	46.8
산불재난특수진화대	0.0	31.8 (79.5)

주: 1) 취약계층 참여율의 () 안의 수치는 2020년 재정일자리사업 합동지침상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 대비 달성 비율임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2020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정량성과지표 중에서 반복참여율과 취약계층참여율만이 산출가능하여 두 지표만을 평가에 반영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주요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됨

* 「산림보호법」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 본 사업과 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이나 감시 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점은 있음
-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진화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많이 받고 실제 산불현장 최일선에 가서 진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함

-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는 특수 직종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채용 기회가 거의 없음. 이에 본 사업을 통해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음
 - 소방관, 공중진화대 등과는 업무가 매우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유사 중복되는 내용은 없음
- **(일자리사업 성과)** '20년 본 사업의 취약계층참여율은 31.8%로 직접 일자리사업 전체(57.3%)와 공공업무지원형사업 평균(46.8%)에 비해 크게 낮고, 목표 취약계층참여율인 40%에도 미달
- 이는 신체적인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이 특성 상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민간일자리로의 이행)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는 특수 직종의 전문직을 채용하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채용 기회가 거의 없고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행 기회도 제한적
 - (중복참여) 특수진화대는 반복참여 제한이 없으며 중복참여는 제한 요소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거의 없음
- **(운영 적절성)**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충분히 달성했지만, 현장 모니터링이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피드백 및 결과 반영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예요원화 등 산불재난 대응 역량강화방안 수립 및 소속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20.6.30.~'20.7.13.)
 - 아울러 정예요원화 방안도 수립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20.8.7.)
- **(제도개선 노력)**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 이행사항 적극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음
- 산불진화분야 현장점검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도개선('20년 7월)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과 취약계층여부 판별, 반복 및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의 참여자 선정 단계를 진행하고 있음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 개선 필요

- “취약계층 우선참여”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라는 정책목표 간의 조정 필요
 - 본 사업을 직접일자리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모집에서 “취약계층 우선참여”를 최우선 해야 하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 참여를 우선순위로 둘 경우 취약계층 목표 비율을 적절하게 완화하되 자격요건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함
- 해당 사업 종료 전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특별한 활동은 없는 상황임. 다른 부문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민간일자리 취업 의욕이 있는 참여자 대상으로 참여 기간 중에 고용센터와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종료 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령자고용장려금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인근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참여종료자 대상 고용연계 서비스 제공 검토
- 대부분 참여자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업 또는 다른 지원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보고 있음. 따라서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함
- 산불진화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형산불이 날 경우 현장에서 진화 활동을 하고 조기 진화 성과도 올리는 것은 교육 훈련 및 경험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임
 - 현재는 특수진화대가 지방청에만 있지만 추후에는 지자체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선발 시 체력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그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성면접을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